“영남알프스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영축환경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약속한 끝장 토론회 개최 요구
“사업 재개, 상식에도 안 맞다”



영축환경위원회와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정원 스님)와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안승찬·배성만)가 6월 20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원 스님과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기획국장 정대 스님, 포교국장 신경 스님 등 통도사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안승찬·배성만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이상범 집행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영축환경위와 범시민대책위는 신불산케이블카 사업 문제 근거로 △21년 3월 세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공사비는 533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644억 원으로 111억 원이나 증액한 공사비에 대해 울주군이 어떤 검증을 했는지 들어본 바가 없다는 점 △신불산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조사에 대책위가 입회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조사 일정 등을 알려주지 않고 진행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게다가 세진중공업과 범시민대책위가 ‘끝장토론’에 합의했으나 제1차 토론회 이후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해 2차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현재까지도 다시 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도 “2018년도에 상급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생태 동식물 보호를 이유로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며 “그러한 문제들이 여전함에도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선운사 MZ세대 전법에 총력 결의

35사단 수계법회 정례화도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MZ세대를 겨냥한 전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선운사는 6월 24일 고창불교회관에서 2024년 2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예산 일부를 포교사업비로 전용할 것을 결의했다.〈사진〉 포교사업비로 전용된 예산은 35사단 군 장병을 위한 수계법회와 위문공연, 고창불교대학교 불교동아리 지원, 사찰 포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사용된다.

경우 스님은 “이제라도 공심으로 일하고 신심으로 포교 전법하자” 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대학생 합동수계법회 봉행

단국대, 공주대, 공주교대 참여



천안 단국대, 공주대, 공주교대 불교학생회는 6월 20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 관음전에서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와 함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계사로 나선 원경 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 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설했다.

한편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단국대 불교동아리 ‘붓다’에 1000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사, 대학생 불교동아리 연합법회

순천대 · 호남대 · 광주여자대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발원”



대학생 포교를 위한 화엄사의 힘찬 걸음이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6월 22일 화엄사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에서 ‘지리산 대화엄사 대학생 불교동아리 연합법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사진〉 이날 연합법회에는 화엄사에서 지원하는 순천대, 호남대, 광주여자대 불교동아리가 참여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3개 대학에 전법기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고, 화엄사도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대학생 포교기금으로 지원했다.

덕문 스님은 “오늘 법회는 대학생 전법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대작불사임을 일깨워주신 자승 큰스님의 원력이 더해졌다”며 “대학생 전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호산 스님은 “지리산 대화엄사와 인연을 맺은 순천대, 호남대, 광주여자대 불교동아리가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엄사는 순천대에 지도법사 선타 스님·지도교수 이종수 교수·동아리회장 최훈표 학생을, 호남대에 지도법사 연성 스님·지도교수 전현진 교수·동아리회장 임준 학생을, 광주여자대에 지도법사 진현 스님·지도교수 박선일 교수·동아리회장 박성희 학생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광주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연성 스님, 흥륜사 주지 선타 스님을 비롯해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박선일 광주여대 지도교수, 전현진 호남대학교 지도교수, 이종수 순천대학교 지도교수, 대학생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래종 ‘약사여래대불 백만원력’ 결집

6월 23일 ‘대작불사 기원법회’



한국불교여래종이 약사여래청동대불 대작불사를 위한 백만원력 법회를 열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6월 23일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약사여래청동대불 백만원력 대작불사 성공기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세계평화 남북통일 지구촌한가족 구병 구호 구도의 서원을 이루고 여래종이 세계화 전국화로 더 나은 종단 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작불사를 원만 성취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6월 20~21일, 화순군청서

“세계적 유산 가치 규명”



천불천탑으로 알려진 화순 운주사(주지 무안 스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월 20~21일까지 양일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은 “운주사는 공간적 조성과 형태의 다양성, 조형성은 불교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세계불교 유산적 가치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적 유산 가치가 규명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기찬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세계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명’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OUV)’, 박경식(단국대 명예교수) △‘타흐트-이-바이 간다라 세계불교유산의 유산적 가치’, 모하마드 튜페일(파키스타, 홍콩이공대 조교수)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 이숙희(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위원)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첫째날 운주사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6주년 행사

혜청 스님 등 200명 참석



호남지역 불교 NGO에서 가장 모범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가 6월 22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2층에서 창립 16주년을 맞아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해청 스님은 “역대 상임대표 스님들과 실무자, 후원자들의 노력 속에 창립 16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대응 활동과 생명 평화운동 그리고 기후 위기시대, 단순 소박한 삶으로의 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드라망 선덕사 자비의 쌀 나눔

인드라망 광주도량 선덕사(주지 담준 스님)는 6월 24일 자비신행회에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 280kg은 광주 동구지역 7개 그룹홈의 아이들과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됐다.

담준 스님은 “〈법구경〉에 ‘똥처럼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나누면 향기가 된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나눔을 통해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군포교후원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1300여 훈련병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자로 거듭났다. 화엄군포교후원회는 6월 22일 논산훈련소 법당 호국연무사에서 1300여 명 불자 훈련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계사로 법석에 오른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아침저녁 5분씩 나무아미타불을 명호하면 마음이 맑아질 것”이라며 “오늘 수계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고 평안하게 군 복무를 마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화엄군포교후원회는 수계법회 후원금 2000만원을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전달했다. 화엄군포교후원회는 2000년 대전과 충청지역 조계종 스님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갑룡장학회,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가 6월 26일 진안군청(군수 전춘성) 2층 상황실에서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전주 천지사 봉사단,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동전 저금통 100개를 모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달했다.〈사진〉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2021년 진안사랑장학회(이사장 전춘성)와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가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만원, 총 5000만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한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지역 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사, 화엄사 · 천은사로 화엄성중 가피 순례

한국불교 대표적 신앙 대상인 화엄성중의 가피를 찾는 성지순례가 마련됐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6월 21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를 순례하는 ‘화엄성중 가피순례’를 진행했다.〈사진〉

화엄성중 가피순례는 신중탱화의 104위 신중에 맞게 104개의 사찰을 탐방하고 화엄성중 기도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순례객을 환영한 덕문 스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잘 쓰셔야 한다. 내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명상이다. 화엄성중 가피처럼 여러 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이 선명상이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하보디교육원, 승려연수교육 회향

(재)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정토마을 자재병원서 진행한 영적 돌봄 임상실습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을 원만 회향됐다.〈사진〉

‘영적돌봄 임상실습’에서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스님들이 영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배우고 병원 현장에서 직접 실습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임상실습에서는 18명의 스님이 수료했다.

이번 임상실습에 참가한 한 스님은 “생사의 경계가 늘 먼 얘기, 남의 얘기로 들렸는데 막상 자신에게 닥쳤을 때나, 가까운 분들의 경우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43돌 광주 보은사, 이주민 나눔 잔치

조계종 송광사 광주광산포교당 보은사(주지 도제 스님)가 6월 23일 창건 43주년을 기념해 ‘따로, 또 우리 함께 자타불이 어울림 한마당’을 주제로 지역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잔치를 열었다.〈사진〉

이 자리에는 동남지역 불교국가들의 이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각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불교계 인기 작가인 정찬주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있었다.

도제 스님은 “보은사 창건 4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활동이 불교적 사회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이웃 사랑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